

가장 외로운 90명 중의 한명이 되라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김찬란님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김찬란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고 시험을 마치고나서 그리고 발표를 기다리기까지 오로지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시간을 떠올려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수험생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까 고민해보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수험생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I. 수험기간

1. 2012년

처음 공부를 시작한건 2012년입니다. 시기상 동차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1차과목보다 2차 과목을 먼저 온라인으로 수강하였는데 기본강의를 듣고 외계강의를 들으니 한 것도 없이 6개월이 지나갔다는 절망에 시험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하더라도 동차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지하게 다른 길도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2012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1차 시험을 4개월 앞둔 12월이 되어서야 일단 1차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을 굳게 먹고 1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을 아깝게 허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고민 끝에 끝까지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기까지의 이 기간이 어쩌면 저의 수험생활에서 가장 필요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건 애초에 확고한 목표의식 없이 '4학년이니깐.. 취업해야하니깐.. 뭐라도 하자' 라는 마음으로 무턱대고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2.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1차 시험 대비기간이었고 시험 이후에는 2차 강의에 대한 고민과 학교 중간고사로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기본강의 종합반을 수강했습니다. 인천에서 학교와 학원을 오가야 했기 때문에 강의를 통한 1회독과 강의내용 복습을 목표로 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전체 1회독을 목표로 도서관에서 개인적인 공부시간을 가졌고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마지막학기라 세과목정도만 수강하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심화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관세법, 무역실무, 관세평가 심화강의를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회독수를 정해 두지 않고 하루에 2~3과목씩 계속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3.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독서실에서 모의고사 진도에 맞추어 공부했습니다. 수험기간을 통틀어 이 기간에 가장 열심히 했고 또 가장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시간에도 시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모의고사가 끝나고 시험이 있기까지 2주간은 암기보다는 다독하기 위해 빠르게 읽어나갔습니다.

II. 1차 시험

저 같은 경우는 2차 과목을 1차 과목보다 먼저 한번 들었었기 때문에 기본강의 만을 수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불안했었던 외계는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했고, 다른 과목의 문제풀이는 기출문제 풀기, 모의고사 2회 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1차 시험을 2차 시험에 비해 소홀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차 시험을 위해서는 1차 시험 통과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1차 시험에서 중요한건 '목표점수와 전략' 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목별로 목표점수가 생기니 공부량과 방향이 정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전략이 되었습니다. 목표점수는 평균 70점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1. 관세법 [85점]

1차 관세법은 깊은 이해보다는 장별로 전체적인 체계와 각종 제도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려고 객관식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파트를 암기하며 공부했습니다. 암기는 장별로 정리한 도표를 암기하고 그 사이사이를 메꿔나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관세법을 공부할 때 도표를 독서대에 올려두고 지금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 FTA특례법

관세법에 대한 비중을 95%이상 두었기 때문에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만 세네가지 정도 뽑아 국가별 표를 만들어 그것만 암기했는데 실제 시험에서 FTA특례법은 한 문제 맞추었습니다.

2. 무역영어 [70점]

전공이 무역이라 가장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목이지만 실제 시험 때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3대 협약을 거의 80%이상의 비중을 두고 공부했고 10%는 기타 기출협약, 나머지 10%는 기본적인 개념부분에서 출제되는 파트를 보았습니다. 무역영어에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가 한글로 된 협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영어 원문으로 된 협약을 암기하려 들었기 때문이라고 2차 무역실무를 공부하며 깨달았습니다.

3. 내국소비세법 [87.5점]

내세법이 범위가 적을 거라 생각해 1월에 기본강의를 수강했는데, 강의를 듣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도 너무 많았고 전년도 내세법이 어렵게 출제되어 꼼꼼히 보아야 했기에 암기에 대한 부담도 많았습니다. 공부 방법은 관세법과 비슷합니다. 장별로 도표를 만들어 전체적인 체계를 볼 수 있도록 했고 주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은 필요한 부분만 A4용지 네장 정도에 요약해서 거의 그것만 보았습니다.

4. 회계학 [80점]

재무회계, 원가회계 기본강의를 듣고 12월에는 기본 개념과 기본 문제풀이에 중점을 두어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인 풀이방법을 익히고 기출문제, 응용문제를 혼자 풀어보려고 했지만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수업 다음날에는 수업내용을 꼭 복습했습니다.

회계는 하루만 책을 덮어두면 처음부터 다시 보아야하기 때문에 매일 보려고 노력했고 오답노트를 만들어 페이지와 문제번호를 표시하고 풀이과정을 적은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3월부터는 문제풀이 책으로 하루는 홀수 문제, 그 다음날은 짝수 문제를 푸는 식으로 다른 장의 문제가 섞여져 있더라도 관련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III. 2차 시험

1. 수강 강의

2차 대비 강의 수강과 관련하여 기본강의 수강 이후 심화강의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본강의 내용도 제대로 복습하지 못했는데 심화강의를 들어도 되는 걸까. 그래서 저는 바로 심화를 듣지 않고 개인적인 공부시간을 갖고, 10월 즈음 관세법, 무역실무, 관세평가 심화강의를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늦었지만 제게는 적절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무역실무는 마스터강의를 추가적으로 수강했고, 1월부터는 문제풀이 종합반 강의를 수강하며 공부하면서 놓쳤던 부분, 답안작성 방법에 관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1) 관세법 [65.5점]

① 모의고사 전

모의고사 전까지 제 목표는 관세법 기본서와 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친해지는 방법은 역시 많이 읽고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목차나 첫 문장만 보고 대충이라도 내용이 떠오르게끔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② 스테디

스테디에서는 그동안의 10점 기출문제를 분담해 답안을 작성해 토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목차를 구성해야하는지 어떤 내용을 추가로 적을 수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③ 모의고사 기간

1월부터는 쓰기위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관세법을 절대 외우면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모의고사가 시작되면서 암기를 시작했고 8분의 1분량으로 나누어진 1,2월에 어느 정도 전반적인 암기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꼼꼼히 보았습니다.

저의 암기방법은 책을 덮고, 이면지에 외워야 하는 장의 큰 목차들을 띄엄 띄엄 차례대로 먼저 적고 세부 목차까지 생각난다면 간단히 적어두고 그 안에 있는 의의 부터 시작해 세부 내용들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을 통해 기본서에 있는 내용 외에 각 제도들의 도입배경, 문제점, 시사점과 같이 답안지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3월에는 2분의 1분량이었기 때문에 1,2월처럼 꼼꼼히 볼 수도 없었고 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주어진 시간동안 볼 수 있는 만큼 보았고 공부하는 방식은 1,2월과 비슷하게 목차를 보며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 시간은 반복해서 보는 만큼 계속해서 단축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전범위였고, 일주일 동안 전범위를 보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중요

한 장과 부족한 장은 매주 보고 그 외의 장은 2주에 한번씩은 꼭 보았습니다. 오히려 1,2월보다 공부하기 수월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에 살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자 여러장에서 문제가 출제되어도 어느 정도 적을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부딪힘을 느꼈습니다.

모의고사 기간 동안 관세법 공부방법은 책을 무작정 읽는 것 보다는 계속 생각하고 떠올렸습니다. 분할납부란? 왜 분할납부라는 제도가 있지? 그럼 원칙적인 납부방식은? 분할납부라는 혜택을 받는 대상은? 이런식으로 주제만 정해두고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했는데, 처음엔 장황하게 늘어놓았었지만 여러번 반복하다보니 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바뀌어갔습니다.

④ 환급특례법

환급특례법은 관세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했었고 모의고사 때부터 다시 차근차근해가자는 생각이었습니다. 1월부터 진도에 따라 10점 분량에 개이지 않고 문제가 수출이행기간이면 의의, 목적, 수출이행기간 등 책에 있는 목차에 '개별환급과의 관계' 와 같이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해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트는 1,2월에 완성했지만 남은 모의고사기간동안 추가하기도 요약하기도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2) 관세율표 [63.5점]

① 모의고사 전

모의고사 전까지 HS는 그 어떤 과목보다 생소한 단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어들에 익숙해지기 위해 반복해서 보았고 중요한 단어는 그 의미를 법령집에 적어두었습니다. 기본서 보다는 법령집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6부, 7부, 15부, 16부 등과 같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암기를 조금씩 해나갔습니다. 이 기간의 암기는 쓰기위한 암기라기 보다는 익숙해지기 위한 암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스테디

스테디에서 유일하게 진도를 끝까지 나갔던 과목입니다. 진도를 정해두고 중요 주규정 암기와 각자 간단한 문제를 준비해 답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주규정을 묻는 문제보다는 '연료의 HS분류' 와 같이 여러 류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③ 모의고사 기간

총론은 1주차 때만 보고 그 이후에는 HS의 정의, 기능, 주의 역할과 같이

기본적인 개념만 보았습니다. 1,2월 뿐만 아니라 HS는 시험 전날까지도 시험 당일 쉬는 시간에도 계속 외워야 하는 과목입니다. 암기는 그냥 외우기보다 암기식으로 외우는 것이 보다 정확히 외우는데 도움도 되고 빨리 떠올리기도 쉬웠기 때문에 암기식을 미리 적어두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외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많은 암기식이 외워질까 걱정도 했지만 계속 반복해 외우다보니 점차 보는 시간도 빨라졌고 암기식도 외워졌습니다. 그리고 15부 비철금속의 합금규정과 같은 내용은 표로 만들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암기했습니다.

암기식은 저만의 암기식도 있었지만 스터디원의 암기식을 공유해 나중에는 암기식으로 대화하듯 했습니다. 이것도 암기에 있어서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HS를 암기할 때 이면지에 외워야하는 부의 표제를 적어 놓고 그 부의 개요를 한번 생각해보고 주규정과 호의체계를 암기했습니다. 그 외에는 모의고사 답안지나 필기했던 내용을 보며 연결고리를 찾아 '5부와 13부' 이렇게 묶어서 공부했습니다.

④ 상품학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내용 중 HS와 연관되어 출제될 수 있는 부분만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품학상 대응물의 의미, 식품관련 대응물의 종류' 와 같은 것입니다.

3) 관세평가 [57.5점]

① 모의고사 전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를 듣고 복습을 통해 1방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그려나 가려고 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법조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며 이해가 완전히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순위 방법도 마찬가지로 법조문 이해와 관련문제 풀이, 그리고 1방법과의 연관성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② 모의고사 기간

모의고사와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협정을 보기시작해서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기분이었고 그런 이유로 2월까지 점수가 잘나오지 않았지만 3월쯤 협정도

반복학습이 되니까 조금씩 적응되기 시작하고 모의고사 점수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세평가는 주제별로 그 의의와 근거를 연결시키면서 보려고 노력했는데, 예를 들어 연속거래의 경우 의의를 먼저 적어두고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과 협정을 같이 적어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또한 관세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특이긴 지문으로 되어있는 문제는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한 번 읽어서는 완전히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부분은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풀어보는 방법을 통해서 긴 지문에 익숙해지도록 연습했습니다.

4) 무역실무 [58점]

① 모의고사 전

무역실무는 분량이 어마어마한 만큼 1회독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무역실무는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것 외에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3대 협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비엔나협약과 UCP는 계속 반복하다 보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파트는 운송과 보험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전 운송과 보험파트를 중심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② 스터디

10점 기출문제를 분담하여 답안을 작성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가끔 기출문제를 살펴보며 공부했을 때 스터디를 통해 모아둔 답안을 활용했습니다.

③ 모의고사 기간

모의고사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만들어 둔 10점 예상문제 답안 서브노트를 거의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공부할지 몰라 서브라도 만들자는 생각으로 적어둔 것들이었는데 다시 보니 책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 정말 쓸모가 없었습니다. 1,2월 모의고사를 시작하면서 범위별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분량을 줄일 필요가 있는 내용을 답안지에 적었는데 이때는 옮겨 적기보다 읽고 생각하며 저만의 글로 적었습니다. 1,2월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모의고사 문제 일부는 다시 정리해서 답안지에 적어두어 서브에 추가했습니다.

모의고사 기간 중 가장 성적이 좋지 못했던 과목이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역실무는 '전략' 이 통하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50점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10점 문제조차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파트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모의고사 답안지, 서브, 요약집, 3대 협약집을 무한반복해서 보았습니다.

④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모의고사 기간 중 대외 외환 공부를 미리 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역실무에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대외 외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상문제를 각 20개씩 정도 만들어 공부했는데 유난히 외국환거래법이 잘 외워지지 않아 대외무역법에 좀 더 투자를 했습니다. 실제 시험 때 외국환거래법은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3. 2차 모의고사

저는 의지가 약해질까 모의고사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가자라는 마음으로 1월을 맞이했습니다. 모의고사를 6개월 동안 참여하면서 모의고사 진도에 맞추어 점점 그 진도를 늘려나가며 반복을 통해 암기를 할 수 있었고, 또 저만의 답안작성 스타일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단 한 주를 열심히 하자는 생각으로 한 주 한 주를 끊어서 공부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답안작성

모의고사 답안지 작성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모든 과목에서 50점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실제 점수배점을 위해서도 50점 문제를 먼저 찍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관세법은 50점 문제를 풀기 전 목차 구성하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HS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예를 들어 '개요-주규정-호의체계-타류와의 관계' 와 같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목차로 잡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관세평가는 모의고사를 통해 익혔던 방식대로 '문제제기-평가쟁점-평가판단 및 해석-제논의' 거의 항상 이렇게 목차를 잡았습니다. 무역실무 역시 관세법처럼 50점 문제를 풀기 전 목차 구성을 미리 하고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50점 문제의 서론과 결론 작성은 모의고사를 반복하고 외독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론에 쓸 내용을 외우려고 했는데 정말

바보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법의 경우 기본서의 장별로 가장 앞부분에 있던 내용을 많이 읽고 서론 결론에 활용했고, HS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타류와의 관계를 서술했습니다. 또한 관세평가는 문제제기를, 무역실무는 앞으로 서술할 내용에 대해 요약하는 식으로 서론을 작성했습니다.

2) 시간배분

시간 내 모든 문제를 다 적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답안을 작성해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글씨를 빨리 쓰지 못하는 편이라 처음엔 10점 두 문제를 놓칠 때도 많아 가능한 한 모든 문제를 서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통해 답안을 쓰다 보니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여섯 문제를 모두 작성했던 경우도 있었고, 10점 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문제는 문제에서 묻는 내용을 충실하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50점 문제는 무조건 40분이라고 정해두지 않고 45분 정도 되더라도 아는 만큼 충분히 쓰려고 했고 애초에 10점 한 문제는 적지 못 할 수도 있다 라는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저는 모든 과목을 한 문제씩 적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 시간적인 면에서 부족했던 점도 있었고 외국환거래법처럼 농진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4. 2차 시험당일

모의고사를 보는 기분으로 시험에 임하자 다짐했지만 정말 많이 긴장됐습니다. 어떻게든 전 날 1회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잠은 오후에 세시간 정도만 자고 일어나서 밤을 지새우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너무 오래 깨어있었던 탓인지 긴장된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 시험이 시작되기 전 정말 많이 불안했었고, 관세법 50점 문제가 잘 읽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시험당일 긴장을 이길 수 있었던 건 그날만을 기다려온 지금까지의 피나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이고 수없이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써내려가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며 썼는지 기억도 안날정도로 순식간에 시험이 끝납니다.

쉬는시간, 방금 끝난 시험보다는 앞으로 있을 시험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관세평가가 끝나고 쉽진 않았지만 무역실무만을 생각하고 운송협약을 빠르게 보았는데 실제 시험에 출제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는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답안작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하신대로 최선을 다해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당황스러운 문제가 몇 개 있었지만 제가 공부한대로 믿고 썼고, 빼먹고 본문에 쓰지 못한 내용은 결론에 서술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발표를 기다리면서 오히려 공부를 했던 때가 맘 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잠시 잊어두시고 공부에만 집중하시고 독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IV. 그밖에 수험생활과 관련하여

1. 스터디

스터디는 7월에 시작해 10월까지 했습니다. 스터디의 장점을 꼽자면, 자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 한 주제를 보더라도 그에 대한 답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처럼 스터디를 같이 했던 분들과 서로 위로하며 의지에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터디는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1차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 내년 스터디를 생각하신다면 전차 보다는 후자를 이유로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스트레스 해소

공부를 오래하다 보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공부가 너무 되지 않을 때에는 억지로 계속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과감히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오후에 세네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공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아버리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책상에 앉았을 때 허비한 시간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걸 여러번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3. 공부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공부시간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루에 몇시간 해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늦잠을 잔 날은 조금 더 늦게까지 공부하고 과목별로 3시간을 기본적인 시간으로 두고 공부하긴 했지만 진도나 컨디션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는 오로지 저의 경험담 일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합격자 분들과 이야기해보니 저와 많이 다른 공부 방법을 가진 분도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것 일겁니다. 끝으로 시험을 앞두고 계신 예비 관세사 여러분, 힘든 수험생활이지만 마음만은 항상 긍정적으로 반드시 합격한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수많은 수험생들 중 가장 외로운 90명이 합격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너무 외롭고 힘이 드시다면 옳은 길을 가고계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기 관세사 김찬량 드림.